

인민을 위해 결오신 헌신의 천만리

세기를 이어 올리는 हम의 송가들을 들으며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과 हम의 마음이 강산에 차넘치는 이 나라의 7월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아름답게 변모되는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촌, 어촌 그 어디를 가보아도 송엄히 어려오는것은 해빛같이 밝은 미소를 웃고 인제나 인민들을 함께 계시던 위대한 아버지의 자애로운 영상이었다. 그 자애의 모습을 우리를 수놓 인민의 마음속에 오늘도 뜨겁게 울리는 노래가 있으니 그것은 가요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이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고 이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 찬이슬 내리는데 또 어디 가시옵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 ...

공화국인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절절히 부르기도 부른 이 노래.

1975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어느 한두명의 작가, 작곡가가 지은 노래이기 전에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율이 된 노래이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굶은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신 아버지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눈금을 적시고 계시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아버지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을 찾아 걸으신 길은 무려 지구를 14바퀴 반이나 돈것과 맞먹는 144만 5 000여리에 달하며 찾으신 단위는 2만 600여개에 헤아린다는 사실은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그 얼마나 마음쓰시고 헌신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돌이켜보면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20성상 향

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는 건강, 건국, 건군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시느라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셨었다. 그리고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쟁이 승리한 다음 목위자고 하시며 최고사령부작전대결에서, 위험한 전선길에서 한밤을 지새우시며 력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전공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세월은 흘러 이 땅에 천리마가 날아오르고 사회주의공명화하의 완성이라는 력사적순간도 맞이하였으며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인민들의 행복은 나날이 늘어났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 자신을 위한 그날의 약속만은 지키지 않으셨었다.

이 땅에 홀려온 무수한 날들에 새겨진 인민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헌신과 로고 양 어깨 다 전할 수 있오랴만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를 적는다.

어느해인가 한 일군은 밤 길도록 문건을 검토하고 계시는 아버지수령님께 단 하루 밤만이라도 쉬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당시 공화국을 방문한 어느한 나라 대표단의 반영자료를 가지고 찾아갔다.

그 반영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인강철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사회주의조선의 발전모습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특히 한세대에 강대한 두 체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평양이시며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원로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지금도 매일과 같이 공장과 농촌을 찾으며 현지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국가수반은 1년에 한 두번 국가행사에 나타나고는 늘 국가휴양지에 있기때문에 우리 정부성원들도 좀처럼 만나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쌓아올리신 공적으로 보나 년세로 보아 김일성주석께서도 응당 쉬시면서 사업하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군이 가져온 반영자료를 다 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그 나라 국가수반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할수 없다고, 동무는 오래동안 나와 함께 일해왔는데 왜 아직도 이런것을 들고다니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느냐고 하시었다. 가슴에 차넘치는 안타까운 심정을 누를길 없어 《수령님, 밤이 갔었습니다.》라고 말씀 드리는 일군에게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일없다고, 산에서 싸울 때부터 밤 잠을 적게 자다보니 이제는 부러워져서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고, 자신께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며 다시 부끄러운 문건을 한 장 또 한 장 번지시었다.

그럼 그날을 만나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쌓아올리신 공적으로 보나 년세로 보아 김일성주석께서도 응당 쉬시면서 사업하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군이 가져온 반영자료를 다 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그 나라 국가수반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할수 없다고, 동무는 오래동안 나와 함께 일해왔는데 왜 아직도 이런것을 들고다니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느냐고 하시었다.

연재인가 4월의 봄 친선에 출숙전무대에서 어느한 나라의 네가수가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이 노래를 절절하게 부르짖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련환공원에서 그 너가수는 이 노래를 부르 고나서 조선말로 《수령님,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말씀드리었다.

극장안이 떠나 갈 듯 박수소리가 터져오르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너가수에게 손을 흔들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을 몸가 가까이 모시고 사업한 한 일군은 후 날 그대를 되새겨보며 무대에도 판람석에도 감격의 파도가 설레이고 모두가 눈금을 뜨겁게 적시고자했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감격에 목메어 말하였다.

그렇게 흘러간 한해한 해, 아니 위대하고 거룩한 한평생이었다. 그러나 그 혁명평도의 나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셨었다.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걸고 또 걸으셨었다. 지어 한 해에 한번밖에 없는 자신의 생신날조차도 그이께서는 수도를 멀리 떠나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곤 하시었다. 이렇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 또 걸으셨었고 그 길에서 인민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온갖 기쁨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었다. 정녕 자신

이 나라의 거리와 마을, 공장 농촌들에 울려 퍼졌었다.

인민은 노래로써 수령님께 간절히 아뢰었다. 잠시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란다.

인민의 소원담은 그 노래는 해가 바뀔수록 더욱 절절하게 울려왔다.

어찌 공화국인민뿐이랴. 위대한 주석님을 흠모하고 그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도 이런것을 들고다니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느냐고 하시었다.

연재인가 4월의 봄 친선에 출숙전무대에서 어느한 나라의 네가수가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이 노래를 절절하게 부르짖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련환공원에서 그 너가수는 이 노래를 부르 고나서 조선말로 《수령님,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말씀드리었다.

극장안이 떠나 갈 듯 박수소리가 터져오르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너가수에게 손을 흔들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을 몸가 가까이 모시고 사업한 한 일군은 후 날 그대를 되새겨보며 무대에도 판람석에도 감격의 파도가 설레이고 모두가 눈금을 뜨겁게 적시고자했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감격에 목메어 말하였다.

그렇게 흘러간 한해한 해, 아니 위대하고 거룩한 한평생이었다. 그러나 그 혁명평도의 나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셨었다.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걸고 또 걸으셨었다. 지어 한 해에 한번밖에 없는 자신의 생신날조차도 그이께서는 수도를 멀리 떠나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곤 하시었다. 이렇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 또 걸으셨었고 그 길에서 인민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온갖 기쁨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었다. 정녕 자신

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신 아버지수령님을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인민들이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리움의 이 7월, 인민의 눈가에는 어려온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 힘찬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또 헤쳐가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엄있는 선군정정의 날과 달들도.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시었다.

나는 만경대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룩해놓은 업적이 크다고 해서만 아닙니다. 아버지수령님의 말씀대로 인민을 위해 일복을 다 고난 가문이기때문에 자랑하는것이 스스로 일감을 만들어 교와 땅을 비쳐왔기 때문에 자랑하는것입니다. ...

나는 오직 인민을 위하여 수령님의 당부대로 한평생 일감에 파묻혀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울리는 위인의 심중의 토로인가.

인민을 위한 일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가 강 커져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며 멀고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걸고 또 걸으시며 나라의 방위력을 최대로 다져주시었다. 강계와 라산, 회천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며 민족의 씨앗들도 뿌려주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언제나 장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의 행복을 지켜, 이 땅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세월의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로써 온 나라 인민들은 이렇게 격정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눈오는 이 아침 너까 장군님 그 여대 찾아가시니 찬눈을 맞으며 가시는 길에 이 마음 따라드립니다. 이 땅의 눈비는 우리가 다 맞으리니 장군님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 ... 참으로 가요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와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는 부르 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수록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강 그리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위인상이 이 뜨겁게 어려오는 영원한 흠모의 송가이다.

이민위천의 송고한 리념이 구현된 공화국에서는 오늘도 령도자가 인민을 위해 천대 미문의 험로역경을 앞장에서 헤쳐나가고 계시며 인민은 그 따사로운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단담에 든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썰물치는 삼복의 무더위와 찬바람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위민헌신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를 우리로써 천만인민은 심장으로 노래 하고있다.

사망하는 조국을 온 세상이 우려하는 천하제일락 원으로 일떠세울수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 갈 길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위민헌신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를 우리로써 천만인민은 심장으로 노래 하고있다.

한 하루 먼길에 찬바람 맞으시고 이밤도 사색을 이으시는 원수님 원수님

자정이 자정이 넘었는데 언젠편 쉬시렵니까 원수님 원수님 이제는 삼태성도 기울었습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사색의 분분초초가 그대로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 그 헌신의 하루하루가 모이고 모여 인민의 세월로 이어지고있기에 누구나 그이와 함께 걸어온 10여년러정을 뜨거운 감격과 격정속에 되새겨본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주제조선의 100년

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력사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성스러운 령정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그이이다.

그 령정우에 꽃피던 인민의 보금자리는 그 얼마나 화려한 창조물들은 또 그 얼마나인가.

이 땅에 펼쳐지는 황홀경 하나하나가 다 경애하는 그이의 위민헌신의 순간순간들이 안아온 사랑의 결정체들이다.

인민을 위해 한순간의 휴식도 잊으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루일과의 시작은 언제나 그이로써 시작을 위해 걸고계신 헌신의 그 길들.

하기에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안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 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그이의 건강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고있는것이다.

... 조국의 부강위해 온몸을 불태우시며 찬란한 우리 미래 펼쳐시는 원수님

새날이 새날이 밝았는데 또 먼길 떠나시니까 원수님 원수님 노을도 소원 안고 불타옵시다

원수님 한몸만 믿고 사는 인민의 소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원수님 안영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인민이 사랑하고 심장으로 부르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송가들에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축원의 마음이 실려 있다.

천만의 심장속에 어찌 두 울리고 오늘도 울리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애곡과 경도의 송가들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공화국의 하늘가에 끊임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

승리의 날 내다보시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42(1953)년 1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고사령부로부터 몇몇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남관개공사와 관련한 준비사업을 함께 의논해보자고 동무들을 불렀다고 하시였기때문이다.

(전쟁이 한창인 이때에 관개공사라니...) 이러한 일군들의 생각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미제침략자들이 강한것처럼 허장성세하지만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었다. 미제침략자들이 패배하고 우리

가 승리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전후에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가들은 언제나 미래를 앞당길 줄 알아야 한다. ...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동무들은 그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다그쳐야 하겠다고, 미제날강도들은 평남관개시설을 모조리 파괴했지만 우리는 미군놈들이 파괴한 그 자리에 세계1등급의 평남관개를 건설하자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이 땅에서는 관개공사준비라는 거창한 창조사업이 벌어지게 되었다.

주제48(1959)년 8월 어느날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한 마을을 가까이하자 승용차를 마을과 좀 떨어진 곳으로 돌리도록 하시었다.

(점심식사전에 또 무슨 사업을 하시려는가?) 그이와 동행한 한 일군이 이런 생각이 잠겨있는 사이에 승용차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강기슭의 평평한 풀밭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척에 있는 마을을 바라보시고나서 일군들에게 오늘 점심식사는 여기서 하고 떠나자고 풀밭에 스스로 앉았으셨었다.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겠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고 하시며 마을은 가깝지만 여기서 점심을 하자고 이르시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뵈기 위해 마을에 와있던 도의 일군들이 달려왔다. 마을을 지척에 두시고

도 풀밭에서 겸소한 점심식사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는 그들의 목소리는 모두 젖어있었다. 그들중 한 일군이 울먹이며 이야기 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동행한 일군은 그에게 이러한 대답밖에 줄수가 없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러하실것입니다.》

주제66(1977)년 8월 어느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금수산의사당 풀을 쾅놓아야 한다면 드문드문 쾅놓으라고 이르시었다.

며칠후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 넘겨되어 복도의 전등을 또다시 모두 쾅놓았다. 그것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즉시 일군을 부르시어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전기가 생산되어 여기 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로력이 드는지 동무

는 아마 잘 모를것이다. 지금 로동자들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회의에서 전기절약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런데 우리라고 레위로 되어서야 되겠는가. 동무의 마음은 알만하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장소에만 불을 쾅놓아야 하였다. ...

이렇게 되어 금수산의사당 복도에는 쾅지 못한 전등들이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유금주

